



[디지털금융 시대] KB국민은행 인력·프로세스·문화 디지털 전환 03



Economy

코스피	2083.48 (+3.21)	코스닥	658.52 (+3.48)
금리 (연평균)	1.47 (-0.02)	환율 (원/달러)	1163.40 (-4.70) (10월31일)

‘갤럭시 효과’ 삼성, 실적 회복세

(스마트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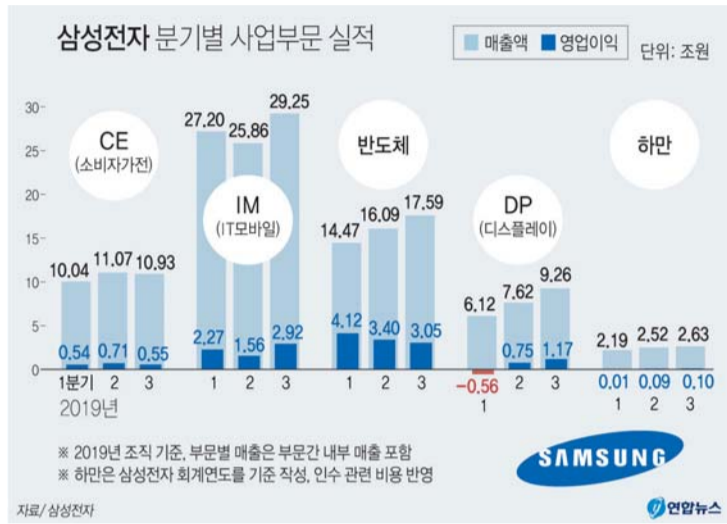
매출 62조, 영업이익 7.7조
IM부문 영업이익 3조 육박
메모리 반도체 부진 상쇄

삼성전자가 더 견고해졌다. 전반적인 사업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서 메모리 반도체 율리현상 극복의 단초를 마련했다. 반도체 부문도 수요 증가와 시스템 반도체 성장에 따라 반등 가능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2조원에 영업이익 7조 78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불황 여파로 더 하락한 영향이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 등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 단단한 구조를 갖게 됐고, 비반도체 사업도 좋은 실적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그 동안 시설투자도 꾸준히



집행했다. 3분기에만 6조 1000억 원을, 올해 누적으로는 16조 8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4조원이 반도체에, 1조 3000억원이 디스플레이에 쓰였다. 올해 말까지 2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가 23조 3000억원, 디스플레이가 2조 9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

년 반도체 시장 회복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평택 등 신규 팹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반도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투자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폴더블 폰 생태계 확대와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 가전 등 신규 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3분기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가 매출 17조 5900억원에

영업이익 3조 500억원으로 예상을 상회했다. 고용량 메모리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일부 고객사의 재고 확보용 수요 등이 실적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스템LSI 부문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전력반도체, 올레드 DDI와 함께 EUV 7나노, 이미지센서 등 파운드리 공급도 늘었다.

4분기에도 긍정적이다. 수요 확대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D램 1y 나노 공정 확대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으로 ‘초격차’를 더 벌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에는 1z 나노 D램과 6세대 V낸드 제품 양산에 주력하며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등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해 리더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2016년 3월, ‘바둑의 신’으로 불렸던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을 압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산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달해 우리 주위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피커 형태로, 또는 의료 지원 형태로, 또는 공장자동화 형태로 상용화됐습니다.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붙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자리 잡을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 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
-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09:00~11:30
- 장 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 주 최: 메트로경제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前 인공지능연구원장)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SK텔레콤, 이스트소프트, 네이버, 현대모비스
- 참가비: 5만원(사전등록 무료)
- 참가신청: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美연준 금리 0.25%p 인하 한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윤면식 부총재 “기대와 부합”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에 대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련 상황점 미 연준의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준은 29~30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1.75~2.0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낮췄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하 단행이다.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 이후 세 차례 연속 금

리를 인하하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떨어뜨린 것이다.

특히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지난달 성명에 포함됐던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기준금리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할 것”이란 문구를 추가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부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대체로 시장 기대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 인하에 시장 반응이 대체로 주가 상승, 금리 하락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우려가 컸던 자본유출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9@



‘2019 코세페’ 오늘 개막

성운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과 방승인 강호동을 비롯한 내빈들이 31일 오전 서울 명동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오픈링 거리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경기 30분대로... GTX 노선 추가 검토

당정 ‘광역교통비전’ 마련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단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대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만들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30% 절감하고 환승시간도 30%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목표는 당정이 마련한 ‘333 광역교통비전’의 골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광역철도 730km, 도시철도 710km인 철도연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광역버스 확대 및 교통시설 간 빠른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A·B·C 3개의 노선이 추진 중인데, 이 방안이 성사되면 GTX-D 노선이 신설되는 셈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